

기업 부채비율 8년 최고치...100곳 중 35곳 부실

부채비율 102.4%로 2014년 이후 최고

차입금 의존도는 역대최고치와 유사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추축했다.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됐고, 차입까지 늘며 부채 비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에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쪼미기업은 100곳 중 35곳으로 늘었다.

13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 129개의 작년 실적분석결과 이자보상비율은 65.6%에서 45.4%로 하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34.1%에서 35.1%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높을수록 안정적이다. 100%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쪼미기업'으로도 불린다.

쪼미기업 규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36.3%를 기록했지만, 2022년 35.1%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0~300% 미만(15.6%→18.5%), 300~500% 미만(7.7%→8.2%)의 기업수 비중이 확대됐지만, 500% 이상 기업수는 42.6%에서 38.2%로 축소됐다.

기업들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01.0%에서 102.4%로 오름세로 악화됐다. 2014년 106.5%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7.6%에서 28.2%로 전년에 비해 올랐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 28.3%와 유사한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34.4%에서 36.7%로, 100~200% 미만 기업수 비중은 20.5%에서 20.9%로 확대된 반면, 200~500% 미만(20.8%→20.3%) 및 500% 이상(14.8%→13.1%)의 기업수 비중은 축소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워낙 금리가 상승하다보니, 이자 부담이 늘며 이자보상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 매출 증가율은 16.9%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3.2%로 감소하다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 재개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17.7%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감소폭은 0.8%포인트(p) 수준에 불과하다.

업종별 제조업(19.7%→16.4%)은 석유정제·코크스(66.9%), 자동차(15.2%) 등을 중심으로 증가, 비제조업(15.3%→17.5%)은 전기가스업(46.8%)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은 직전해 18.6%에서 18.1%로 소폭 하락, 중소기업도 14.5%에서 12.3%로 내렸다. /뉴스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 92.5%

광주비정규직센터 최저임금 모니터링...6년 만에 최고치

올해 광주 지역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율이 92.5%로 나타나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비교적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 교육 이수율 낮고, 사업주가 인건비 보전을 위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노동자 458명·사업주 190명 등 총 648명을 대상으로 '2023 광주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준수율은 지난해(85.5%)보다 7% 상승한 9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6차례 진행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준수율이다. 최저임금 준수율은 2019년 76.3%, 2019년 81.6%, 2020년

81.9%, 2021년 86.7%, 2022년 85.5%다.

특히 매년 40~60대 낮은 준수율을 기록하던 편의점은 올해 86.1%를 기록했다. 준수율 상승 배경으로는 관계기관의 제도와 사업주의 인식의 변화가 꼽힌다.

다만 정규직보다 파트타임직이 많은 편의점·판매업의 경우 '안전 교육 이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업안전 교육 이수율은 판매업 40%, 편의점 45.8%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53.9%가 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의견도 두드러졌다. 노동자의 45.9%는 '3~6%(9909원~1만197원)'인 상를, 사업주 60.5%는 '동결(9620원)'을 원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취업성공 징검다리 역할 토크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한 전남일자리종합센터가 상담·알선·취업까지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 취업성공 징검다리 역할을 토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는 올해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알선 4290건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2회(광양·함평),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1회(나주) 운영 등을 통해 689명의 취업 지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순천에서 개최한 '시군과 함께하는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엔 약 1500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

구인 3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한 박람회에선 구직자 376명이 면접을 통해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미취업자는 취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올해 4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에 200여개 기업과 구직자 1768명이 참여해 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담에서 알선, 취업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맞춤형 현장 면접을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직자에게 면접 컨설팅과 기업탐방·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대규모 채용행사인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수박' 집에서 편하게 배송받는다. 홈플러스 15일부터 28일까지 헤택이 통통 '홈네 수박발'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박 연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응모만 해도 최대 1만원 쿠폰을 선착순 증정 받을 수 있고 매일 정오에 열리는 수박연구소 퀴즈에서는 최대 3000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뉴스

한국광기술원-LS전선 '차세대 광통신 기술협력' 업무협약

5·6G(세대) 통신용 멀티코어 광섬유 원천기술 확보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MOU를 맺었다. /LS전선 제공

한국광기술원(KOPI)은 LS전선과 '차세대 광통신 기술협력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5·6G(세대)

통신용 멀티코어(Multi Core) 광섬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광섬유는 광케이블의 심선으로 사용된다. 코어 수에 따라 데이터 전송 용량이 늘어난다. 멀티코어 광섬유는 현재 활용되는 1코어 광섬유에 비해 데이터 전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통신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극소수 업체만 개발에 성공한 난도 높은 기술이다.

LS전선과 한국광기술원은 멀티코어 광섬유 개발부터, 광통신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은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표준화 참여를 통해 차세대 통신케이블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현대차·기아 상반기 수출 100만대 돌파

'역대 최대' 실적...올해 총 200만대 수출 가능성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상반기 수출 신기록을 속속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올 상반기 수출 물량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말까지 96만989대로 1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두 회사가 올해 월평균 19만대가량을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현재 누적 100만대를 훌쩍 넘겼을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차·기아의 상반기 수출 물량이 1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총수출 대수는 각각 100만9025대, 89만9048대로, 올해는 200만대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한정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1~5월 해외 판매는 137만94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다. 기아도 같은 기간 11.9% 증가한 105만4547대를 해외에서 팔았다.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 확대는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추진에 39조934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6089억원, 3조327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아도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 2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영업이익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치 모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다. /뉴스

전남 축산물 수급·가격안정 해외 판로 확대

물류비·포장재·관측 지원 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남산 축산물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가공업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남도의 정책 지원에 따른 것으로, 수출 품목은 돼지고기와 한우 고기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구성된 도내 광역브랜드 및 한우·돼지고기 축산물 가공업체에 수출물류비, 포장재 구입비, 관측 행사비, 마케팅비 등 소요 비용을 '전남산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6억 원에 이

어 3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동명축산은 돼지고기를 2022년 1800마리, 약 10억원 분량인 154톤 수출했으며 올 들어서도 630마리, 약 3억 원 분량인 50톤을 수출했다.

최근 홍콩거래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물량을 연간 200톤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냉장 지육으로 돼지 전 부위를 수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밖에 한우고기 비선호 부위인 목심과 앞다리(냉동)도 연간 30톤 규모 신규 계약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재고량 감소와 한우 수급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안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수여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월 15일 2023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아이지스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관 수여식을 가졌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설립한 ㈜아이지는

리가공설비 업체로서, 유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작년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09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 2012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2017년 벤처기업 확인, 2020년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22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권형안 기자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품 전남농기원, 유통채널 확대

전남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제품'의 유통채널이 확대된다.

전남농기원은 최근 ㈜백세식품, 굿데이와 업무협약을 통해 흑하랑 가공제품을 홀푸드와 오프라인에 본격 판매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농기원·흑하랑공동생산자연합회·산업체 3자 간 협약으로 진행됐다.

㈜백세식품은 흑하랑 가공제품 생산에 성공한 1호 기업으로 2021년부터 흑하랑정·분말을 시작으로 섭취하기 용이한 분말 스틱 신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을 다양화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홀푸드, 약국체인망, 동남아·북미 해외직매장 등으로 건강식품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울촌1산단 순천부지에 5751억 규모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

포스코리튬솔루션(주), 2025년까지 연간 2만5천톤 규모 리튬 생산체제 완성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13일 광양만권 울촌 제1산단 순천부지 내에 5751억원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국회의원, 포스코리튬솔루션(주) 박희석 대표 등 포스코 그룹 임직원 및 김명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고객사, 정인화 광양시장, 송승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순천시의회 정병희 의장, 순천시 순천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화리튬(LiOH)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또다른 핵심원료인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뉴스

앞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1일 순천시와 57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학·관·연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2만 5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생산직 직원 210명이 신규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수산화리튬 2만5000톤은 전기차 63만대에 공급가능한 양이다.

이번 착공은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포스코그룹은 리튬을 비롯한 이차전지사업에서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친환경 미래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승락 광양만권경제청장은 "이번 투자는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시 부시장은 "우리 지역인 울촌1산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포스코 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